

롤런드 앨런의 <쓰는 인간>에서 작가에게 노트는 그저 단순한 기록의 도구를 뛰어넘어 생각을 정리하고 확장하는 가장 창의적인 공간이면서 사유의 동반자다. 그는 쓰는 행위가 삶의 혁신을 가져온다고 말한다. 기록이나 창작활동 이외에도 종이의 쓰임새는 무궁무진하다. 종이는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일평생을 함께한다.

글·사진 김효정

종이의 새로운 발견

뮤지엄 산
페이퍼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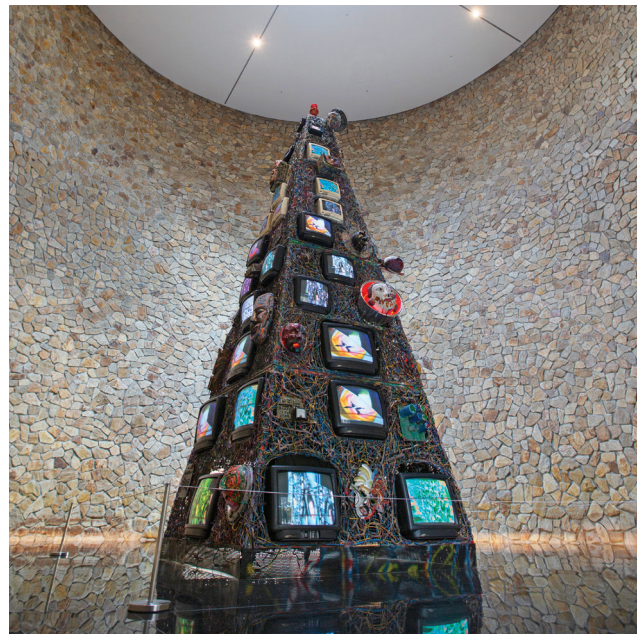
소통을 위한 단절

원주의 뮤지엄 산은 크게 페이퍼갤러리와 미술관으로 구성된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연의 품에서 건축과 예술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직접 설계했고, 플라워가든, 워터가든, 명상관, 스톤가든을 체험할 수 있으며, 기획전시를 비롯해 빛과 공간의 예술가인 '제임스 터렐'의 작품도 관람객을 맞는다.

웰컴 센터를 지나 플라워가든으로 들어서기 전, 새파란 꽃사과 한 개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청춘'이라는 작품명을 가진 꽃사과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永遠の青春へ(영원한 청춘에)'. 지난해 '안도 다다오의 청춘 전(展)'을 장식했던 조형물을 자리만 옮겨 배치해 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사진을 찍는다. 나이를 불문하고 청춘은 우리 모두의 소망인 것 같다.

페이퍼갤러리는 본관에 자리 잡고 있는데, 오솔길을 따라 느린 걸음을 산책하듯 자연을 걷다 보면 만날 수 있다. 총 4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된 종이 박물관은 산업적 가치의 종이보다 우리 종이의 문화적 가치에 초점을 맞췄다. 뮤지엄 산은 1997년부터 운영해 온 종이 박물관(現 페이퍼갤러리)을 시작으로, 2013년 미술관(청조 갤러리)까지 확장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담은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M
U
S
E
U
M
S
A
N



인간이 발견한 최초의 종이

페이퍼갤러리에서 가장 먼저 관람객을 반기는 것은 '파피루스 온살'이다. 종이(Paper)의 어원이기도 한 파피루스는 고대 그리스어 파피로스(Papyrus), 라틴어로는 파피루스(Papyrus)라 불렸다. 기원전 3000년경부터 이집트에서는 나일강 유역에 자라는 이 식물을 이용해 줄기의 껍질을 벗기고 속을 가늘게 찢은 다음, 엮어서 말린 후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종이가 발명되기 전까지 기록의 용도로 활발히 사용했다. 파피루스 온살은 안도 다다오의 초기 건축물 중 하나인 스미요시 주택에서 볼 수 있는 중정의 형태로 만들어졌다.



페이퍼갤러리 1관은 '종이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구성된다. 종이 이전의 글쓰기 재료에서부터 종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서양으로 전파되는 과정과 제지 기술의 발전 등을 소개하는 공간이다. 종이 이전의 글쓰기 재료로, 인더스 문명에서 글쓰기 재료로 사용한 패다라(貝多羅), 기원전 1300년 전에 거북이 등껍질이나 동물의 뼈 위에 새겨진 갑골문, 소아시아 페르가몬의 왕 에우메네스 2세에 의해 만들어진 종이 대체품도 직접 살펴볼 수 있다.

종이는 공식적으로 서기 105년 중국 후한의 환관 채륜이 발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전한시대(206 B.C.~A.D. 24)의 종이가 발굴되면서 채륜은 식물 섬유를 사용해 종이를 만든 개척가로 재평가되었다. 채륜이 종이를 발명하고 종이 만드는 기술이 최초로 전파된 곳은 한반도였다. 불교가 한반도로 전파된 4~5세기 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본다. 또 고구려 담징이 610년경 우리의 종이 제조 기술을 일본에 전파했다는 일본서기 기록이 있어 늦어도 7세기 이전에 한반도에 종이 기술이 들어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밖에도 산업화의 영향으로 기계화가 이뤄지며 종이를 만들었던 '1953년 소형 초지기, 1680년 홀랜더 비터, 1798년 로베로 초지기'의 실물도 만나볼 수 있다.



info.

뮤지엄 산 페이퍼갤러리
www.museumsan.org

관람시간

10:00 ~ 18:00
*입장 매표마감 17:00

휴관일

매주 월요일

기본권 관람료

대인 23,000
초중고 15,000
어린이 5,000
유아 무료
*패키지별 요금 상이
홈페이지 참조

관람 문의

033-730-9000~1

주소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오크밸리 2길 260

종이의 실용성과 선조들의 정신

‘종이를 품다’, ‘뜻을 품다’를 주제로한 공간인 2관, 3관은 종으로 표현된 여러가지 종이 공예품과 뮤지엄 산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와 보물 등의 전적류가 전시되어 있다. 2관에서는 지승, 지장, 지호, 전지 등 아름다운 감각이 돋보이는 선조들의 종이 공예품을 관람하는 재미가 있다. 특히, 길흥화복을 관장했다는 호랑이를 모티브로 만든 호랑이 베개가 눈길을 사로잡았는데, 이것을 베고 자면 삼재에서 벗어나 오래 살 수 있다는 선조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 2관 출구에는 종이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 한 공예법을 소개했고, 직접 만져볼 수 있어 유익했다. 3관은 종이를 비롯한 선조들이 사용하던 유물을 관람할 수 있다. 고려시대 최초의 종이 인쇄물이었던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36’이 관람객의 발길을 붙든다. 닥종이에 찍은 목판본으로 종이를 길게 이어 붙여 두루마리처럼 말아서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든 불교 경전으로 천 년이 넘는 종이 유물임에도 종이 상태가 매우 양호했다. 화엄경 36권은 보살이 수행 과정에서 겪는 10단계의 경지 중에 4단계 염해지에 관한 것으로 10가지 부처의 가르침을 풀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4관은 관람객 참여가 가능한 미디어 설치 작품이 마련되어 있다. ‘바람_The breeze’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품은 종지와 잉크의 친밀한 의미를 보여주며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한다. 참여자가 종이를 들고 무대 위에 서면 잉크가 떨어져 종이에 글자가 새겨지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얹혀 있는 종이 위로 흘러 보내면, 글자가 옮겨지는 방식이다.

미술관에서는 20세기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회화 작품과 종이를 매체로 하는 판화, 드로잉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또 미술계의 패러다임을 바꾼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를 만날 수 있고, 상설전과 기획전을 통해 뮤지엄 산이 소장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때로는 공간이 주는 힘에 압도된다. 안도 다다오는 뮤지엄 산의 본관을 설계하며 사각, 삼각, 원형의 공간을 연결했다. 이는 대지와 하늘, 사람을 잇고자 하는 그의 철학이 담겼다고 한다. 선선한 가을바람에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면, 뮤지엄 산에서 소소한 산책은 어떨까? 🍂

